법계공동체 실상사는 우리 모두의 절

신라 구산선문의 최초 가람으로 법계공동체를 가꾸는 다양한 실험과 실천을 해온 남원 실상사(주지 해강)가 10년에 걸친 발굴조사와 3년 여 동안의 불사추진을 위한 고민한 끝에 실상사불사추진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불사에 돌입했다.

10월 22일 실상사 보광전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을 비롯해 관련학계 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및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산내면사무소 앞에서 시작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및 자문위원단 위촉, 주민들의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발족식에서 해강 스님은 "실상사는 절에 사는 스님들만의 절이 아니라 사부대중의 절이요 마을의 절이다"며 "실상사 불사는 절 담장을 넘어 마을과 산과 들판이 어우러지는 우리의 삶을 꿈꾸는 산매마을 법계공동체를 가꾸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은 그동안 실상사 불사를 위해 애쓰다 유명을 달리한 故 정기용 선생과 생태운동에 평생을 바친 故 김재일 선생에 대한 추모 묵념을 올리고 고인의 명복을 기원했다.

발족식에 이어 종교계 문화예술계 문화재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와 지역 어르신과 불자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한 올해 수확한 농산물을 부처님전에 올리는 헌공식과 축하공연으로 이어졌다.

그동안 실상사는 2008년 '우리나라 사찰 불사에 대한 성찰과 방향 모색을 위한 불사세미나'를 시작으로 2009년 10월 불사의 지침을 마련하게 된 실상사선언 '불사십조'를 발표했다.

2010년에는 실상사 중창불사를 구체화하는 불사워크숍을 진행했다. 또한 실상사는 올해 상반기 불사 기본안을 마련해놓고 2012년 3월 문화재청의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이 완료되면 불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월 22일 실상사 중창불사추진위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올바른 불사를 다짐했다.

불사의 기본지침, 불사십조(佛事十條) 란?

실상사는 불사에 참고할 기본지침을 정리한 실상사 선언 '불사십조'를 지난 2009년 10월에 발표했다.

이들이 마련한 불사십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기적 세계관의 불사'다. 모든 사물이 유형무형의 관계 속에 그물코처럼 이어졌다는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과 시대정신을 반영한 불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생명살림의 불사'로 자연과 생명체, 사람이 합일공존하는 것이어야 하며 돌, 풀, 나무 등 모든 대상과 생명을 모시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스님, 신도, 지역주민의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살리는 불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땅의 선택이나 건물배치 공간의 비움 건축규모 재료 장식 표현 등이 올바르고 적절한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는 불사'이다.

다섯째는 스님 신도 전문가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올바른 절차를 협의해 진행되는 '대중적 협동의 불사'다.

이외에도 ▷자연과 풍경을 배려하는 불사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사 ▷고전의 정신을 계승하는 불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사 ▷지속가능한 생태적 불사가 '불사십조'로 꼽혔다.

"구슬을 꿸 수 있는 실을 찾아준 것 뿐"

외국인 노동자들의 아버지 설묵 정용기 거사

개산대재가 봉행중인 금산사 앞자리에 자리하고 앉은 50여 외국인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주변에서 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한 한국인이 있다. 설묵 정용기 거사(사진)이다.

설묵 정용기 거사는 완주 산업단지내 600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아버지라고 불린다. 실제 고국의 어머니와 화상통화때 설묵 거사를 '한국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사람도 있다.

완주 산업단지 문화관에 근무하고 있는 설묵 거사가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8년 전 우연히 마트에서 베트남 노동자를 만나면서 부터이다. 설묵 거사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절단된 노동자를 남들 모르게 살펴주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매주 토요일마다 기숙사를 찾아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고국의 가정사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뢰를 쌓았다. 이러한 인연이 바탕이 되어 이제는 회사와 노동자들간의 중재자 역할까지 하게 됐다.

설묵 거사의 이런 자비행 때문인지 외국인노동자들의 탈선이나 불법행위가 완주산업단지 내에서는 거의 없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완주 산업단지내 외국인 노동자 큰 잔치를 개최하게 된 계기도 설묵 거사의 역할이 컸다.

설묵 거사는 조계종 포교사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억지로 포교나 전법활동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최근 들어 이웃종교의 선교가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하지만 적극적인 종교 강요는 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설묵 거사는 이들의 고충과 가정사를 들어주다보면 신뢰가 쌓여 불교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과 함께 손으로 밥을 먹고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이해하면서 진심으로 그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설묵 거사는 주말이면 늘 빵이나 우유 같은 간식과 옷가지를 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를 방문하고 있다.

휴일이면 식사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고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된 이들은 겨울옷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여러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설묵 거사가 추위에 떨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준 일화는 완주 산업 단지내에서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는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노동자들은 전주 천천클럽의 후원과 병원관계자들을 설득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후견인 역할도 자임하고 있다. 또 그들이 송광사에서 요양 후에는 다시 현장에 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무수한 자비행을 오늘도 펼치고 있다.

설묵 거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3D업종에 근무하며 우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나눔과 동시에 한국문화를 익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설묵 거사는 "완주 산업단지 부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어갈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왕이면 스님이 상주하면서 포교당 역할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상담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면 더욱 좋겠다는 바람이다.

설묵 거사는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일이 없다며 단지 구슬을 꿸 수 있는 실의 역할을 찾아준 것 뿐"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집에서 안쓰는 물건 이웃 위해 기부하세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는 소년소녀가장들과 독거어르신들의 김장김치를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를 11월 23~24일 자비신행회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바자회는 기존 아나바다(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운동에 '기부'의 의미를 더해 쓰지 않는 물건들을 기증 받아 잘 손질해서 필요한 사람이 값싸게 살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전액은 독거어르신들의 밑반찬과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보내는 김장김치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자비신행회 김월희 간사는 "누구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많을 것이다. 나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될 수 있다. 자비신행회에 물품을 보내주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보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간사는 "바자회 후원물품은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면 어떤 물건이든 가능하고, 의류 신발 가방 유아용품 방한용품 그릇 장남감 악기류 장식류 등 종류에 상관없이 기증을 받고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62)234-0090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평소 훈련해야 성보 지킨다

고창 선운사, 고창소방서 함께 목조문화재 화재 대비 소방훈련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10월 25일 고창소방서(서장 윤병헌)와 합동으로 중요 목조문화재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보물 제290호 선운사 대웅보전과 보물 제803호 참당암 대웅전등 목조 성보문화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시됐다.

이번 소방훈련에서는 소화기를 활용한 화재 진압, 소방용수 확보, 소방차량 부서 배치와 소방 호스전개, 화재발생시 초등대처 방법 등을 점검했다.

또한 유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소화전 확보와 방수포 사용, 화점 방수 훈련 등의 실전경험을 쌓았다.

훈련을 마친 후에는 선운산 입구 관리사무소 앞 광장에서 주변 상인 및 일반 관광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및 산악사고 주의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펼쳤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에서 소방훈련을 하는 모습

순천 선암사 대각국사 탄신 다례재

대각국사 의천 스님 탄신 956주년 다례재가 10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됐다.

선암사 경내에서 열린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과 주지 경담 스님을 비롯한 2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고려불교의 융합을 실현하고, 고려 속장경을 간행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탄신을 기념해 매년 음력 9월 28일에 열려왔다. 행사에서는 경담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차와 공양이 올려졌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부처님 마음과 가르침을 잘 배우도록 노력해야 하며, 배운 것은 항상 수행을 통해 대중들에게 회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 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 ~ 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최고의 명품! 선물로도 최고

2000만 佛子님의 필수품 디지털불경 뉴룸비니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 특별 할인 판매 대 행사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새롭게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뉴룸비니'

■ 규 격 8.5×5.2×2.0cm
■ 가 격 34,000 (건전지 포함)
룸비니는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하시면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휴대용 디지털 불경 룸비니를 제작하여 시판에 들어가 선풍적 인기리에 판매되어 으며 이에 보답하기 위하여 기능이 더욱 향상된 2011년 최신모델을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뉴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며 불자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뉴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불자님의 수호신 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心琴을 울린 효동선각스님의 독경이 가까이 있습니다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독경은 타고난 바리톤 음성으로 각종 불교 행사에서 인정받고 있는 효동선각 스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독경을 진행 하셨습니다. 스님은 무형문화제 50호 故송암스님의 수제자로 양산 통도사로 출가하여 백양사,법주사,용주사에서 수행하셨고 서울 효동 범음대학 4년 수료와 중앙승가 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동국대 대학원 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 하셨습니다.

2011년형 뉴룸비니 탄생기념행사로 2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팩키지 1 뉴룸비니, 아답터(가정에서 전기사용) 특별가 37.000원
팩키지 2 뉴룸비니, 아답터, CD 2개 특별가 45.000원
팩키지 3 뉴룸비니, 아답터,테이프 3개, CD2개 특별가 5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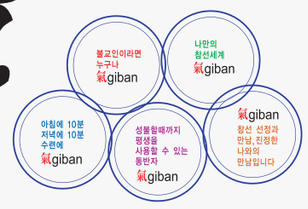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1,000set 이상 주문시 스님의 독경 및 법문을 입력시켜 드립니다. (독경,법문 녹음CD가 필요 합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